

나주시, 별이 내린 빛의 정원... 시민의 하루를 밝힌다

빛가람 빛정원 페스타 21일 개막, 내년 1월 4일까지 지역 기업 협력 프로그램 등 시민 참여 콘텐츠 확대

드레스코드 '그린' 이벤트, 특색 체험과 볼거리 풍성

전라남도 나주시가 겨울밤을 밝히는 시민 참여형 축제인 '2025 빛가람 빛정원 페스타'를 오는 11월 21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개최하며 별빛이 내려앉은 겨울 정원을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올해 축제를 통해 시민의 일상 속 반짝이는 순간을 공유하며 함께 머무는 따뜻한 겨울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18일 밝혔다.

빛가람 호수공원 일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별이 내린 빛의 정원을 콘셉트로 몽환적인 분위기의 야간 경관을 연출한다.

나비가 날아다니는 정원, 음악이 흐르는 음울 다리, 반딧불이 가득한 숲속길, 호수에 떨어진 별뿔별 등 호수공원 여울다리에서 산책길까지 이어지는 빛의 동선이 구성돼 관람객은 겨울밤 속 빛의 이야기를 체험하게 된다.

조형물 전시는 축제 기간 상시 관람이 가능하며 일부 시설은 축제 종료 후에도 존치해 지속 가능한 야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개막행사는 11월 21일 저녁 7시 개막선언을 시작으로 약 40분 동안 시민과 함께 '빛의 정원'을 여는 특별한 시간이 될 전망이다.



올해 축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의 주인공이라는 메시지를 중심에 두고 작지만 따뜻한 빛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나주/이명열 기자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전통시장 노점에서도 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 노점 카드결제 지원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전통시장 노점의 구조적 한계였던 카드 결제 불가 문제를 행정과 상인회가 협력하여 해결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10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기에 시범운영을 거쳐, 11월 곡성군 전남형 기본소득 선불카드 지급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곡성군은 노점 결제 편의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

곡성군, 전통시장 노점 카드결제 지원으로 시장 활성화에 총력

기본소득·소비쿠폰 수혜확대... 매출 급증으로 지역경제 활력 견인

력하여 상인회 소유 카드리더기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통시장 버스 도우미를 현장 결제 지원 인력으로 투입하여, 카드리더기를 들고 시장 곳곳을 돌며 노점에서 발생하는 결제를 즉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방식은 단말기 설치가 어려운 노점 특성을 반영한 선도적 모델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운영한 사례로 평

가된다. 서비스 도입 효과는 11월 전남형 기본소득 지급과 함께 바로 나타났다.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은 단 하루만에 노점에서만 일 매출 1천만 원을 기록하였고, 육과·석곡 전통시장도 각각 4백만 원 이상의 매출 성과를 기록하며, 카드결제 도입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결제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방문객

의 소비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상인들 또한 손님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곡성군과 전통시장 상인회가 함께 협력하여 전통시장 매출 증가라는 성과를 이뤄냈다"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곡성군은 향후 상인회와 함께 결제인력 지원 확대, 카드리더기 운영 효율화, 노점 결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시장 활성화 정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곡성/이정수 기자

장성군이 내년도 고향사랑기금으로 추진할 핵심사업을 선정했다.

군은 앞선 7월부터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와 부서별 제안 등을 통해 총 83건의 사업을 발굴했다. 이 가운데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설문조사 대상 사업을 확정 한 뒤 지난 10월 조사에 들어갔다.

이후 군민과 일반인, 기부한 사람 등이 직접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향사랑기금심의운용위원회가 '고향사랑 감동쉼터' 조성 △'맘(mom) 든든 임신

장성군, 내년도 고향사랑 기금사업 선정

'고향사랑 감동쉼터' 조성, 조정 꿈나무 경기정 지원 등 4건

부 케어 서비스' △고향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조정 꿈나무 경기정 지원 총 4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고향사랑 감동쉼터'는 보행로 등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군민이 머물다 갈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설치 장소, 디자인 등 구체적인 사항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결정할 계획이다.

'맘 든든 임신부 케어 서비스'는 지역 내 임신부 130여 명에게 1인 최대 30만 원 한도로 청소, 가사 도우미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고향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11개 읍면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

이 되어 자원봉사,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마을 문제 해결에도 나서는 사업이다. 군정 필수사업으로 발굴됐으며 올해에 이어 연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정 꿈나무 경기정 지원'은 지역 내 중·고교 조정선수단에 경기정 4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목표금액 1억 7000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정기부 모금에 들어간다.

장성/황해연 기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해제면 봉대산성이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역사문화권 소규모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역사문화권 소규모 정비사업」은 역사문화권 내 매장유산의 학술·역사적 가치를 높이고, 발굴 완료 후 국가유산의 보호와 안전관리,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이다.

무안 봉대산성에서는 성벽과 처, 성 내부

무안 봉대산성, 국가유산청 '역사문화권 소규모 정비사업' 선정

후삼국시대 호족 거점지 유구 확인... 사적 지정 추진 본격화

건물지와 집수정 등 다양한 유구가 확인됐으며, 특히 북쪽 성벽에서 문확성 1매가 출토되어 문지 위치를 추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10세기 초로 추정되는 중국제 자기와 호남 지역 최초로 확인된 청동인장도 함께 출토되어, 신라 말 9세기 후반부

할 계획이며, 조사 성과에 따라 봉대산성의 국가문화유산(사적)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산 군수는 "이번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국가유산의 가치를 지키고, 지역 주민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보존·활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봉대산성을 비롯한 우리 지역 문화유산을 온전하게 지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제공



찬바람 불어오면 불향 가득한 '광양불고기'가 제맛

깊은 풍미와 육즙으로 입맛 사로잡는 달달한 K-푸드

광양시가 수은주가 푹 떨어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늦가을, 체온을 따뜻하게 지켜주고 기력을 보충할 수 있는 계절 음식으로 '광양불고기'를 추천하며 관심을 끌고 있다.

광양불고기는 정통화로에 참숯을 피우고 얇게 저민 소고기를 구리 석쇠에 올려 구워 먹는 음식으로 은은한 불향과 촉촉한 육즙이 어우러져 깊은 풍미를 자랑한다.

조선시대 '천하일미 마로화적, 세상에서 첫째가는 맛은 마로(광양)의 불고기'라는 말이 전해질 만큼, 광양불고기의 감칠맛은 오랜 세월 인정받아 왔다.

400년 전통을 이어온 정통 조리법과 자연의 맛이 조화를 이루는 광양불고기는 이제는 국내를 넘어 세계 미식가들이 찾는 대표 K-푸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요즘처럼 기온이 급격히 낮아져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계절에는, 숯불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낸 따뜻한 광양불고기가 몸을 덥히고 기력을 북

돋는 보양 음식으로 제격이다.

광양불고기 전문점이 즐비한 서천변에는 광양불고기의 유래와 전통을 소개하는 스토리보드와 이색 조형물이 조성된 '광양불고기특화거리'가 자리해 흥미를 더한다. 특히 늦가을에는 은행잎과 단풍이 어우러져 식사와 산책을 함께 즐기 좋은 계절 명소로 더욱 사랑받는다.

이현주 관광과장은 "광양불고기의 따뜻한 풍미와 더불어 백운산과 섬진강, 광양만이 빛어낸 옥룡사 동백나무 숲, 배알도 섬 정원, 인서리공원 등 광양의 다양한 관광자원도 함께 둘러보며 늦가을 광양의 매력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은 백운산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참숯 덕분에 예로부터 숯불구이 문화가 발달해 광양불고기뿐만 아니라 광양닭숯불구이, 광양장어구이 등 기력을 보하고 따뜻한 기운을 더해 주는 다양한 숯불요리가 면면히 전해 내려오고 있다.

광양/신선호 기자

완도군, '으뜸 마을 만들기' 4년 연속 우수 시군 선정

군외 중리, 신지 양지, 고금 봉암, 청산 청계·도청2 등 5개 마을 선정

완도군은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정정 전남 으뜸 마을 사업'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 시군 선정,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정정 전남 으뜸 마을 만들기'는 주민 스스로 마을을 가꾸고 개선하는 과정 속 공동체 정신 함양 및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완도군에서는 군외면 중리, 신지면 양지, 고금면 봉암, 청산면 청계, 도청2 등 5개 마을이 우수 으뜸 마을로 선정됐다.

군외면 중리마을에서는 마을 산책로에 태양광 LED 조명을 설치해 주민과 방문객의 야간 안전을 확보했으며, 신지 양지

마을은 생활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쓰레기 집적소를 설치, 고금 봉암마을은 봉황산의 등산로를 정비했다.

청산 청계마을은 장례식장 외벽을 도자기 벽화를 그려 포도존으로 재탄생시켰으며, 도청2마을은 역사 골목에 장미 넝쿨 조성 및 으뜸 마을 사진전 등 주민 주도의 경관 정비와 함께 관광 자원을 연계한 마을 특성화 활동으로 호평을 받았다.

이거석 행정지원과장은 "수상은 주민들이 주체가 돼 만들어낸 결과이다"면서 "앞으로도 주민 주도의 공동체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